

한국형 건강 편의식 개발 방향 도출을 위한 소비자의 식행동 및 인식 조사

윤 선 · 손경희 · 광동경 · 김정수 · 권대중

연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1998년 7월 21일 접수)

Consumer Trends on Dietary and Food Purchasing Behaviors and Perception for the Convenience Foods

Sun Yoon, Kyung Hee Sohn, Tong Kyung Kwak, Jung Soo Kim, and Dae Joong Kwon

Department of Food & Nutrition, Yonsei University

(Received July 21, 1998)

Abstract

This study was attempted to identify emerging consumer trends on dietary and food purchasing behaviors and perception for the convenience foods. Self completed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from 710 housewives in Seoul and Kyunggi province and analyzed statistically. A questionnaire consisted of 3 parts including demographic backgrounds, dietary and food purchasing behaviors, perception for the convenience foods. Among demographic variables age, occupation and lifestyle were the significant factors affecting consumers' behaviors and perception of dietary lives. Over half of housewives, who are the primary persons responsible for home meal preparation, confessed that they do not enjoy meal planning and preparation any more. An attitude toward in home food preparation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age groups, working or non-working women and lifestyles. Most of the respondents go shopping for foods whenever they need to or 2-3 times a week. They also did not plan before going foods shopping and purchase decisions were made in-store. They considered quality of foods more important than price. Consumers were not willing to purchase pre-cut packaged vegetables or pre-cooked foods on the market. However, they showed strong desire and demand for the development of convenience korean foods coupled with high quality.

I. 서론

현대 사회는 소득 수준의 향상과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주부들의 식품구매 양상 및 식사 준비에 대한 태도가 급격히 달라지고 있다¹⁻³⁾. 특히 여성 취업의 증대와 젊은 여성의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은 식생활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외식의 인구와 그 이용빈도가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은 건강식품을 선호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패스트푸드 업체뿐 아니라 음식점, 호텔, 급식업체, 기내식 등의 모든 급식관련 업체와 식품가공업체에서는 영

양과 건강이 강조된 식단 개발로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⁴⁾.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식생활 행동의 변화 추이를 조사·연구함으로써 한국형 건강 편의식의 개발 방향 설정의 기초자료를 얻고자 하였다.

II. 연구 방법

1. 조사대상 및 기간

본 조사는 1997년 9월 20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

과 경기 일부지역의 주부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설문지는 본 대학교 교직원과 초, 중, 고, 대학 학생들을 통해 총 900부를 배포한 후, 어머니들이 직접 응답하게 하고, 이를 다시 학생들을 통해 회수하거나 우편으로 회수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이 중 710부가 회수되어 본 연구에 사용되었다.

2. 조사 내용 및 방법

연구 조사에 이용된 설문지는 주부들의 식생활 행동과 관련된 기존의 문헌을 참고하여 개발한 후 예비 조사를 통해 수정·보완하였다⁵⁻⁸⁾. 본 설문지는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관련된 일반사항과 식생활 행동 및 인식에 관한 사항들로 구성되었다.

일반사항은 연령, 교육수준, 거주지역, 직업, 수입, 가사노동, 라이프스타일 등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가치관 및 소비패턴의 경향을 조사함으로써 한국음식의 편의식 개발방향과 마케팅에 유용한 정보를 얻고자 하였다.

라이프 스타일은 기존의 문헌^{2,17,18)}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자신의 생활을 즐기며 사회활동에도 적극 참여하므로 가정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된다'를 현대적 향유형으로, '매우 소극적이고 사회의식이나 사회활동에 무관심한 동시에 가정생활에도 별로 충실하지 못하다'를 소극적 침체형으로, '자기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가정관리도 완벽하게 하려고 한다'를 적극 활동형으로, '자기 자신보다는 가족과 집안 일을 위해 많은 시간을 보낸다'를 전통 보수형으로 정의하였다.

식생활 행동은 외식, 식사 준비에 관련된 사항, 식단 계획, 식사형태, 식생활에 관련된 인식 및 행동 등으로 구성하여 사회·문화적 변화와 함께 달라지고 있는 식생활 관련 행동 및 인식을 조사하였다.

3. 통계 분석 방법

본 조사자료는 SAS package program(version 6.04)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⁹⁾. 조사 대상자의 일반사항, 식생활 행동 및 인식에 관한 각각의 세부문항들의 빈도 백분율을 구하였으며, 조사대상의 일반특성에 따른 식생활 행동 및 인식 간의 관계를 일원분산분석, Factor Analysis 방법, 정준상관분석 및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조사 대상의 일반사항

조사대상자들의 연령, 교육정도, 세대주직업, 주부의 취업여부, 가정의 월평균 소득, 식생활비, 자녀연령에 대한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710명의 응답자 중

<표 1> 조사 대상자의 일반 사항

N = 710

변 수	N	%	
연 령	20~30	91	13.0
	31~40	224	31.9
	41~50	297	33.2
	51 <	90	12.8
	No answer	8	
교육 수준	초등학교 졸	9	1.3
	중학교 졸	27	4.0
	고등학교 졸	301	44.8
	대학교 졸	287	42.7
	대학원 졸	48	7.1
	No answer	38	
세대주 직업	전문기술직	125	19.9
	행정·사무직	235	37.5
	자영업	166	26.5
	기타 노무직	101	16.1
	No answer	83	
주부 직업	전업 주부	326	50.7
	직장 여성	317	49.3
	No answer	67	
수 입	<150	224	31.5
	200~300	156	22.0
	300~400	165	23.2
	300 <	165	23.2
식 생활 비	< 30	368	51.8
	30~50	193	27.2
	50~80	60	8.5
	80 <	89	12.5
	No answer		
자녀 연령	미취학	164	26.9
	초등학교	58	9.5
	중학교	153	25.1
	고등학교	235	38.5
	No answer	100	
라이프 스타일	현대적 향유형	131	18.8
	소극적 침체형	25	3.5
	적극 활동형	289	41.5
	전통 보수형	252	36.2
	No answer	13	

40~50세가 297명(33.2%)으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고, 30~40대(224명, 31.9%), 20~30대(91명, 13.0%), 50세 이상(90명, 12.8%) 순이었다. 교육 정도는 고등학교 졸업이 301명(44.8%)으로 가장 많았으며, 조사 대상자의 94.6%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보였다. 세대주의 직업을 살펴보면 행정·사무직이 235명(37.5%)으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 자영업(166명, 26.5%), 전문기술직(125명, 19.9%), 기타 노무직(101명, 16.1%) 순이었다. 주부의 취업여부를 살펴보면 취업주부가 49.3%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우리 나라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47.6%보다 높게 나타났다¹⁰⁾. 가정의 월평균 소득은 150만원 이하가 224명(31.5%)으로 가장 높았고, 200~300만원과 300만원 이상 소득 가정이 각각 165명(23.2%)이었고, 150~200만원이 156명(22.0%)이었다. 가정의 한달 식생활비는 30만원 이하가 368명(51.8%)으로 가장 많았고, 30~50만원(193명, 27.2%), 80만원 이상(89명, 12.5), 50~80만원(60명, 8.5%) 순이었다. 자녀의 연령은 고등학생이 235명(38.5%)으로 가장 많았고, 미취학(164명, 26.9%), 중학교(153명, 25.1%), 초등학교(58명, 9.5%) 순이었다.

전체 연령에 따른 라이프 스타일은 응답자의 대다수(77.7%)가 적극 활동형이나 전통 보수형으로서 가사(家事)의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와 30대는 적극 활동형이 각각 51.15%, 45.18%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었고, 40대는 현대적 향유형이 49.17%, 50대 이상은 전통 보수형이 43.40%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었으며, 연령에 따라 라이프 스타일이 유의적으로 큰 차이가 있었다($p<.01$)

주부 취업 여부에 따라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는데($p<.01$), 전업 주부의 경우는 전통 보수형이 47.98%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취업 주부의 경우 적극 활동형이 47.62%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2. 조사 대상자의 식행동

식사준비는 76.72%가 혼자 하거나 배우자와 자녀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님이나 유급 가사 보조자에게 도움을 받는 경우는 23.28%이었다. 광⁸⁾ 등의 연구와 비교할 때 낮은 수치이지만, 본 조사의 응답자 중 49.3%가 취업상태인 것을 고려할 때 아직도 식사준비에 대한 부담은 주부들에게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각 변수별로 식사를 준비하는 사람은 연령에 따라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1$). 모든 연령에서 대부분 주부 혼자 식사를 준비하는 경우가 가장 높은 빈

도를 보였지만, 20대와 30대는 부모님이 도와주는 경우가 두 번째 높은 빈도를 보였고, 40대와 50대는 배우자와 자녀가 도와주는 비율이 두 번째로 높았다.

식사를 준비하는 사람은 주부의 취업 여부에 따라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1$). 혼자 식사를 준비하는 경우는 전업주부가 63.04%, 직장 여성이 49.37%로 큰 차이를 보였으며, 부모님이 도와주는 경우도 전업주부가 5.59%, 취업 여성의 경우 21.20%로 큰 차이를 보였다.

가정의 월평균 소득과 라이프 스타일에 의해서도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1$).

식사 준비에 대한 느낌은 각 항목간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지만($p>.05$) '의무감과 필요에 의해서 한다'고 대답한 경우가 44.51%로 가장 많았고, '적당한 사람이 있으면 맡기고 싶다'가 13.32%, '힘들고 귀찮다'가 3.78%, '시간낭비라고 생각한다'가 0.95%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전체 응답자 중 62.56%의 주부가 식사 준비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사 준비는 배우자(50.56%)와 자녀(30.97%)를 위주로 준비하고 있어서 주부들의 의식이 자신보다 가족을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각 변수들에 의한 차이를 살펴보면, 연령에 따라서 20대와 30대 이상의 집단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p<.05$). 20대의 경우 배우자(52.94%) 다음으로 본인(24.71%)이 중요 대상으로 나타났다.

주부의 직업여부에 따라 전업 주부와 취업 주부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으며($p<.01$), 전업주부의 경우 본인이 중요한 대상이라고 대답한 경우가 6.52%인 반면, 취업주부는 14.60%로 취업주부의 경우 전업주부에 비해 식사 준비시 본인이 중요한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높았다.

식사 준비 대상은 가정의 월평균 소득에 따라서도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p<.01$).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현대적 향유형과 소극적 침체형 집단의 경우, 적극 활동형과 전통 보수형 집단과 비교할 때 본인이 중요한 대상으로 대답한 경우가 각각 23.85%, 28.00%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사항에 따른 식사 준비시 중요한 대상은 대부분의 항목에서 배우자의 비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자녀, 본인, 할아버지나 할머니의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편익식 개발시 배우자와 자녀의 취향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일반사항에 따른 식단체획은 전체적으로 볼 때 '계획하지 않는다'로 대답한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36.01%), 그 다음으로 '장볼 때 즉흥적으로 한다

〈표 2〉 일반사항에 따른 음식 준비에 대한 느낌

변수	N(%)					χ^2 value
	가족을 위하는 일이므로 즐겁다	의무감과 필요에 의해서 한다	시간낭비라고 생각한다	힘들고 귀찮다	적당한 사람이 있으면 맡기고 싶다	
연령						
20대	34(39.53)	37(43.02)	2(2.33)	3(3.49)	10(11.63)	13.998a df = 12
30대	73(37.06)	85(43.15)	-	5(2.54)	34(17.26)	
40대	99(37.08)	125(46.82)	3(1.12)	9(3.37)	31(11.61)	
50대 이상	46(41.82)	42(38.18)	2(1.82)	8(7.27)	12(13.79)	
Total	252(38.18)	289(43.79)	7(1.06)	25(3.79)	87(13.18)	
교육수준						
초등학교 졸	3(33.33)	4(44.44)	-	-	2(22.22)	22.977 df = 16
중학교 졸	8(29.63)	16(59.26)	-	-	3(11.11)	
고등학교 졸	133(44.63)	121(40.60)	4(1.34)	14(4.70)	26(8.72)	
대학교 졸	94(32.87)	133(46.50)	2(0.70)	9(3.15)	48(16.78)	
대학원 졸	17(35.42)	20(41.67)	-	1(2.08)	10(20.83)	
Total	255(38.17)	294(44.01)	6(0.90)	24(3.59)	89(13.32)	
세대주 직업						
전문기술직	33(26.40)	57(45.60)	-	5(4.00)	30(24.00)	33.659a df = 12
행정·사무직	83(35.47)	117(50.00)	1(0.43)	7(2.99)	26(11.11)	
자영업	76(46.34)	60(36.59)	3(1.83)	6(3.66)	19(11.59)	
기타 노무직	36(35.64)	46(45.54)	2(1.98)	8(7.92)	9(8.91)	
Total	228(36.54)	280(44.87)	6(0.96)	26(4.17)	84(13.46)	
주부 직업						
전업 주부	124(38.27)	142(43.83)	3(0.93)	14(4.32)	41(12.65)	2.171 df = 4
직장 여성	112(35.44)	147(46.52)	2(0.63)	9(2.85)	46(14.56)	
Total	236(36.88)	289(45.16)	5(0.78)	23(3.59)	87(13.59)	
수입						
150만원 이하	88(39.64)	97(43.69)	5(2.25)	9(4.05)	23(10.36)	13.057 df = 12
200만원 이하	58(37.18)	73(46.79)	1(0.64)	8(5.13)	16(10.26)	
300만원 이하	62(37.58)	70(42.42)	1(0.61)	5(3.03)	27(16.36)	
300만원 초과	56(34.36)	75(46.01)	-	5(3.07)	27(16.56)	
Total	264(37.39)	315(44.62)	7(0.99)	27(3.82)	93(13.17)	
라이프 스타일						
현대적 향유형	37(28.24)	64(48.85)	4(3.05)	8(6.11)	18(13.74)	22.923a df = 12
소극적 침체형	6(24.00)	12(48.00)	-	2(8.00)	5(20.00)	
적극 활동형	125(43.25)	126(43.60)	1(0.35)	6(2.08)	31(10.73)	
전통 보수형	93(36.90)	109(43.25)	2(0.79)	10(3.97)	38(15.08)	
Total	261(37.45)	311(44.62)	7(1.00)	26(3.73)	92(13.20)	

* *p<0,1 **p<0,05 ***p<0,01

^a 25% of the cells have expected counts less than 5. Chi-Square may not be a valid test.

(31.64%)', '계획하지만 실천하지 못한다(17.81%)' 順이다. 반면에 '계획하여 실천한다'는 14.54%로서 대부분이 식단계획에 따른 식사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단 계획 여부는 세대주 직업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p<.05). 기타 노무직의 경우 51.49%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으며(p<.01), 계획하지만 실천하지 못한다는 항목에서도 나머지 직종과 기타 노무직 간에

〈표 3〉 일반사항에 따른 식단계획

변수	N(%)				χ ² value
	계획은 하지 않는다	계획하여 실천한다	계획하지만 실천하지 못한다	장볼때 즉흥적으로 한다	
연령					
20대	34(39.53)	12(13.95)	17(19.77)	23(26.74)	14.455 df = 9
30대	66(33.67)	27(13.78)	38(19.39)	65(33.16)	
40대	103(38.72)	29(10.90)	48(18.05)	86(32.33)	
50대 이상	33(30.56)	27(25.00)	17(15.74)	31(28.70)	
Total	236(35.98)	95(14.48)	120(18.29)	205(31.25)	
교육수준					
초등학교 졸	5(55.56)	1(11.11)	-	3(33.33)	30.649a df = 12
중학교 졸	11(40.74)	2(7.41)	2(7.41)	12(44.44)	
고등학교 졸	124(42.03)	30(10.17)	50(16.95)	91(30.85)	
대학교 졸	87(30.53)	57(20.00)	56(19.65)	85(29.82)	
대학원 졸	8(17.02)	11(23.40)	9(19.15)	19(40.43)	
Total	235(35.44)	101(15.23)	117(17.65)	210(31.67)	
세대주 직업					
전문기술직	36(29.27)	25(20.33)	19(15.45)	43(34.96)	31.709*** df = 9
행정·사무직	75(32.05)	41(17.52)	44(18.80)	74(31.62)	
자영업	63(38.89)	11(6.79)	38(23.46)	50(30.86)	
기타 노무직	52(51.49)	13(12.87)	7(6.93)	29(28.71)	
Total	226(36.45)	90(14.52)	108(17.42)	196(31.61)	
주부 직업					
전업 주부	116(36.02)	47(14.60)	65(20.19)	94(29.19)	2.880 df = 3
직장 여성	113(35.99)	42(13.38)	51(16.24)	108(34.39)	
Total	229(36.01)	89(13.99)	116(18.24)	202(31.76)	
수입					
150만원 이하	92(42.01)	29(13.24)	37(16.89)	61(27.85)	10.288 df = 9
200만원 이하	55(35.26)	20(12.82)	27(17.31)	54(34.62)	
300만원 이하	60(36.59)	28(17.07)	24(14.63)	52(34.62)	
300만원 초과	46(28.57)	25(15.53)	35(21.74)	55(34.16)	
Total	253(36.14)	102(14.57)	123(17.57)	222(31.71)	
라이프 스타일					
현대적 향유형	61(46.92)	11(8.46)	23(17.69)	35(26.92)	21.035** df = 9
소극적 침체형	9(36.00)	-	4(16.00)	12(48.00)	
적극 활동형	93(32.52)	55(19.23)	52(18.18)	86(30.07)	
전통 보수형	86(34.40)	34(13.60)	43(17.20)	87(34.80)	
Total	249(36.03)	100(14.47)	122(17.66)	220(31.84)	

* p<0.1 **p<0.05 ***p<0.01

a 25% of the cells have expected counts less than 5, Chi-Square may not be a valid test.

큰 차이를 보였다. 또한 전문 기술직과 행정·사무직 집단과 자영업, 기타노무직 집단간에 계획하여 실천한다는 항목에서 차이를 나타내었다.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분류에서 현대적 향유형의 경우 계획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경우가 다른 형태의

스타일보다 높았으며(46.92%), 소극적 침체형의 경우 다른 스타일보다 장볼 때 즉흥적으로 한다고 대답한 경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48.0%).

일반사항에 따른 장보기 빈도는 전체적으로 볼 때 '필요할 때마다 한다'고 대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표 4〉 일반사항에 따른 장보기 빈도

변수	N(%)				χ ² value
	1주일에 한번	1주일에 2-3번	매일	필요할 때마다	
연령					
20대	24(28.24)	27(31.76)	3(3.53)	31(36.47)	34.543*** df = 9
30대	38(33.52)	91(46.91)	9(4.64)	56(28.87)	
40대	36(13.53)	85(31.95)	30(11.28)	115(43.23)	
50대 이상	15(13.76)	34(31.19)	11(10.09)	49(44.95)	
Total	113(17.28)	237(36.24)	53(8.10)	49(44.95)	
교육수준					
초등학교 졸	1(11.11)	1(11.11)	-	7(77.78)	33.159a df = 12
중학교 졸	3(11.54)	7(26.92)	3(11.54)	13(50.00)	
고등학교 졸	45(15.15)	97(32.66)	35(11.78)	120(40.40)	
대학교 졸	62(21.83)	116(40.85)	16(5.63)	90(31.69)	
대학원 졸	15(32.61)	18(39.13)	2(4.35)	11(23.91)	
Total	126(19.03)	239(36.10)	56(8.46)	241(36.40)	
세대주 직업					
전문기술직	30(24.19)	46(37.10)	9(7.26)	39(31.45)	15.348 df = 9
행정·사무직	34(14.72)	93(40.26)	18(7.79)	86(37.23)	
자영업	29(17.68)	60(36.59)	20(12.20)	55(33.54)	
기타 노무직	16(16.16)	27(27.27)	8(8.08)	48(48.48)	
Total	109(17.64)	226(36.57)	55(8.90)	228(36.89)	
주부 직업					
전업 주부	36(11.21)	120(37.38)	36(11.21)	129(40.19)	20.378***
직장 여성	74(23.57)	113(35.99)	19(6.05)	108(45.57)	df = 3
Total	110(17.32)	233(36.69)	55(8.66)	237(37.32)	
수입					
150만원 이하	34(15.53)	70(31.96)	15(6.85)	100(45.66)	19.454** df = 9
200만원 이하	24(15.58)	59(38.31)	20(12.99)	51(33.12)	
300만원 이하	30(18.40)	56(34.36)	14(8.59)	63(38.65)	
300만원 초과	40(24.39)	65(39.63)	11(6.71)	48(29.27)	
Total	128(18.29)	250(35.71)	60(8.57)	262(37.43)	
라이프 스타일					
현대적 향유형	36(27.69)	44(33.85)	12(9.23)	38(29.23)	20.850** df = 9
소극적 침체형	7(28.00)	10(40.00)	-	8(32.00)	
적극 활동형	53(18.66)	104(36.62)	22(7.75)	105(36.97)	
전통 보수형	30(11.90)	90(35.71)	26(10.32)	106(42.06)	
Total	126(18.23)	248(35.89)	60(8.68)	257(37.19)	

* p<0.1 **p<0.05 ***p<0.01

^a 25% of the cells have expected counts less than 5. Chi-Square may not be a valid test.

그 다음으로 '1주일에 2~3번', '1주일에 한번', '매일'의 순이었다. 이는 장보기가 번거로운 데도 불구하고 주부들이 가공 식품보다는 신선 식품 구매를 많이 하고 또한 식단계획을 하지 않으므로 장보기의 횟수를 줄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각 변수별로 살펴보면, 연령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

가 있었다(p<.01). 40대와 50대 이상에서 1주일에 한번 장을 본다고 대답한 경우가 각각 13.53%, 13.76%이었으며, 20대는 28.24%, 30대는 33.52%로 나타났다. 30대의 경우 1주일에 2~3번 장을 본다고 대답한 사람이 46.91%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대와 40대, 50대 이상의 집단은 필요할 때마다

다 장을 본다'고 대답한 경우가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보기 빈도는 주부 취업 여부에 따라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전업 주부나 취업 주부 모두 필요할 때마다 장을 본다'고 대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1주일에 한번 장을 본다'고 대답한 경우는 전업 주부가 11.21%, 취업 주부는 23.57%이었으며, 매일 보는 경우도 전업 주부는 11.21%, 취업 주부는 6.05%로 두 집단간에 장을 보는 빈도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p<.01). 그러나 교육 수준과 세대주 직업에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장보기 빈도는 가정의 월평균 수입에 따라서 각 집단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p<.05). 150만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정에서는 필요할 때마다 장을 본다'고 대답한 경우가 타 집단보다 높았으며(45.66%), 300만원을 초과하는 집단에서는 1주일에 한번 장을 본다'고 대답한 경우가 타 집단과 비교하였을 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4.39%).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는도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p<.01). 1주일에 한번 장을 보는 경우는 현대적 함유형이 27.69%, 소극적 침체형은 28.00%인 반면, 적극 활동형이 18.66%, 전통 보수형이 11.90%인 결과에 비해 큰 차이를 보였다. 또한 소극적 침체형은 매일 장을 본다'고 대답한 경우가 없었다.

3. 외식비 지출 및 외식 행동

한달 외식비 평균값은 9~20만원으로 교육수준, 세대주 직업, 주부의 직업유무, 수입에 따라 유의적인 차

〈표 5〉 일반사항에 따른 외식비 (만원)

변 수	외식비 (M±SD)	F-value	
연령	20~30	12.83± 9.05	2.10
	31~40	15.46±18.03	
	41~50	12.18±11.26	
	51 <	14.84±12.16	
교육수준	초등학교	4.71± 3.90	6.40*
	중학교	10.50±11.47	
	고등학교	10.93± 5.57	
	대학교	16.65±17.74	
	대학원	14.71±11.06	
세대주 직업	전문기술직	15.73±13.48	3.22
	행정·사무직	13.93±16.65	
	자영업	14.47±12.09	
	기타 노무직	9.40± 8.77	
주부 직업	전업 주부	15.53±13.43	2.32
	직장 여성	12.65±15.13	
수입	<150	9.82± 7.71	27.24*
	200~300	9.91± 6.76	
	300~400	13.32± 9.55	
	300 <	21.83±21.91	

* *p<.001

이를 보였다(p<.05). 교육수준과 수입이 낮고, 노무직에 종사하는 경우 외식비의 지출이 유의적으로 낮았다(p<.05).

주부의 직업에 따라서 식사 준비 시간에서 유의적

〈표 6〉 연령에 따른 외식 횟수와 식사 준비시간 및 식사형태 (M±SD)

	연 령				F-value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외식 횟수(회/월)	6.11±7.39	3.87±2.94	3.13±2.55	2.90±2.28	14.22***	
식사 준비시간 (시간/일)	2.63±1.47	2.88±1.30	3.21±1.73	3.06±1.30	3.76**	
식사형태	일품요리	1.20±0.98	1.51±1.52	1.21±1.24	1.30±1.18	1.98 ^c
	편의식	2.01±1.86	1.47±1.28	1.60±1.22	1.45±1.44	3.11 ^{a**}
	경양식	0.59±1.22	0.82±1.13	0.62±0.81	0.73±1.16	1.46 ^c
	배달음식	0.79±0.93	0.79±0.80	0.86±1.12	0.68±0.95	0.70 ^c
	한국음식	8.63±6.29	9.78±6.02	9.80±5.95	10.13±6.31	0.98 ^c

* *p<.01 **p<.05 ***p<.001

^a Means on same column followed by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SNK multiple comparison

^b Means on same column followed by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LSD multiple comparison

^c Differences are not detected by SNK & Duncan's multiple comparison

인 차이를 보였으며(p<.01), 전업 주부보다는 직장 여성이 외식 횟수 및 편의식의 이용빈도가 높았다. 또한 식사 형태는 전업 주부와 직장 여성 모두 한국음식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외식 횟수는 20대가 30대 이상 집단 사이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01, 송¹¹⁾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 나라도 연령이 낮아질수록 외식을 특별한 행사로 여기기보다는 한끼 식사를 해결하기 위한 생활의 일부분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점차 외식의 목적이 미국의 추세를 따라가는 경향으로 보인다¹²⁾. 또한 1996년 1/4분기 우리 나라 도시 가정의 식품비 중 외식비의 비율은 95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여 금액으로 19.5%나 증가하였고, 이는 일본과 비교하여 높은 비율로 보고되고 있다¹⁵⁾.

식사 준비시간은 20대보다 40대가 유의적으로 식사 준비 시간이 길었다(p<.05). 식사 형태의 경우 일품요리와 경양식, 배달음식, 한국음식의 경우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지만, 20대의 경우 편의식의 이용빈도가 30대 이상보다 높았으며(p<.05), 식사 준비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았다.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외식 횟수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p<.01). 현대적 향유형과 소극적 침체형 집단이 적극 활동형과 전통 보수형 집단에 비해 외식 횟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사 준비 시간은 전통 보수형의 집단이 현대적 향유형과 소극적 침체형 집단에 비해 유의적으로 식사 준비 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p<.01). 식사형태에 있어서 편의식의 경우 현대적 향유형 집단이 전통 보수형 집단에 비해 이용빈도가 유의적으로 높았다(p<.05). 그 외에 일품요리, 경양식, 배달음식, 한국음식은 이용빈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4. 구매 행동 및 인식도 조사

식생활 행동과 관련된 사항은 <표 7>에 제시하였다. 식품구매행동에 있어서는 총동구매를 자주 안한다고 대답한 경우가 2.93점으로 나타나 현대인의 소비 패턴을 나타내고 있었다. 가격을 확인하고 싼 것을 고르는 습관은 3.08점으로 식품의 가격이 구매를 결정짓는 주요 원인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음식은 시간이 걸리는 것보다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음식을 선호하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가공 식품을 잘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콕 등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 나라 주부들은 시판되고 있는 조리식품 및 인스턴트 음식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표 7> 구매 행동 및 인식

항 목	인식도 (M±SD)
총동 구매를 자주 한다	2.70±0.90
항상 가격을 확인하고 가장 싼 것을 고른다	2.93±0.93
시간이 걸리는 음식보다는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음식을 한다.	3.08±0.98
가공식품을 애용한다	2.50±0.92
시장, 슈퍼, 백화점에서 양념이 다 된 반찬을 산다.	1.82±0.83
야채는 손질이 된 것을 고른다	1.97±0.90
주부도 직업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3.83±0.78
음식의 조리법을 배우고 싶다	3.83±0.80
손님 초대시 집에서 음식을 준비한다	3.97±0.77
명절 음식은 집에서 주로 만든다	4.07±0.91
외식을 자주 했으면 좋겠다	2.99±0.83
반찬 걱정을 자주 한다	3.61±0.87
각 음식에 필요한 재료를 포장해서 판매했으면 좋겠다.	2.96±0.98
장보는 시간이 너무 걸린다	2.76±0.82
식사 관리를 해 주는 전문인 또는 업체가 있었으면 좋겠다.	3.04±0.93
식사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얻었으면 좋겠다.	3.83±0.71
품질이 좋은 소스, 양념장, 육수가 개발되었으면 좋겠다.	3.67±0.89
믿고 살 수 있는 품질이 우수한 편의식이 개발되었으면 좋겠다.	3.95±0.85

* 1=전혀 아니다, 2=아니다, 3=그저 그렇다, 4=그렇다, 5=정말 그렇다

결과와 일치한다^{6,7,8,16)}.

이와 반대로 주부들은 각 음식에 필요한 재료를 포장해서 팔거나, 품질이 좋은 소스, 양념장, 육수 및 편의식의 개발에 대한 높은 요구도를 나타냈다.

많은 주부들이 음식 조리법을 배우고 싶다고 응답했으며, 손님접대시·명절에 집에서 음식을 장만하고 있었다. 또한 반찬걱정을 자주한다는 항목은 3.61점으로 식생활 관리는 주부들의 가장 큰 관심이면서 부담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관한 대책으로 식사관리에 필요한 정보 제공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으며, 전문인이나 전문업체에 의한 식사관리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전업 주부와 취업주부를 비교해 보면, 취업 주부가 전업주부에 비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조리식품을 이용하는 경향이 유의적으로 높았다($p<.01$). 전업 주부와 취업 주부 모두 가공식품이나 완전조리식품 및 전처리 식품의 구입 빈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장이나 슈퍼마켓에서 구입하는 반찬류의 이용도가 낮았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8,13,16}). 또한 반찬 준비에 대해 두 집단 모두 부담을 느끼고 있었으며, 전업주부에 비해 직장여성들이 '각 음식에 필요한 재료를 포장해서 판매했으면 좋겠다', '품질이 좋은 소스, 양념장, 육수가 개발되었으면 좋겠다'에서 유의적으로 높은 요구도를 나타내었다($p<.01$).

연령에 따른 인식도 조사에서는 젊은 층으로 갈수록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음식을 원하고 있었으며, 가공 및 전처리 식품의 이용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핵가족이 대부분인 젊은 층에서 가정 내에서의 요리법 전승이 어려워지고 간편성에 대한 선호도가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6,8,14,16}).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인식도 조사에서는 현대적 향유형과 소극적 침체형의 집단이 간편한 음식의 사용빈도가 높았다.

IV. 요약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 지방의 주부들을 대상으로 식생활 행동과 편의식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함으로써, 한국형 건강 편의식 개발 방향 도출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얻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를 위하여 710명의 주부들이 응답한 설문지가 통계학적으로 분석되었다. 설문지는 일반 사항, 식생활 및 식품 구매 행동과 편의식에 대한 인식도에 관한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일반 사항 중 연령, 취업 여부, 라이프 스타일이 응답자의 식행동과 편의식에 대한 인식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자임이 규명되었다. 식생활 전반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는 것은 주부들이었으나, 이들의 대부분이 식사 준비에 대해 즐겁다기보다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태도는 다른 연령군, 취업 여부, 라이프 스타일군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장보기 빈도는 필요할 때마다 1주일에 2~3번이 가장 높았다. 또한 미리 식단 계획을 하기보다는 장볼 때 즉흥적으로 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식품 구입시 가격보다는 품질을 중요시하고 있었다. 소비자들은 현재 시판되고 있는 손질된 야채나 조리된 식품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품질이 우수한 편의식 개발에 대한 요구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1996년도 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한국형 건강 편의식 개발' 연구 결과의 일부로 이에 감사드립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서울 및 경기 지방의 주부들을 대상으로 소비자들의 가치관 및 식생활 행동과 소비 패턴을 조사함으로써 한국형 건강 편의식 개발 방향과 마케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하였다.

1. 본 연구에 의한 주부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응답자의 대다수가 '자기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가정관리도 완벽하게 하려고 한다'는 적극 활동형과 '자기 자신보다는 가족과 집안 일을 위해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전통보수형으로서 가사의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20대에서는 현대적 향유형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주부가 30대 이상의 주부들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다.
2. 조사 대상자의 식행동은 주부의 취업여부, 연령,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주부가 식사 준비를 혼자 하고 있었다. 또한 식사 준비에 대한 느낌도 가족을 위한 일이므로 기쁘다는 것보다는 의무감과 필요에 의해서 식사 준비를 하는 등 주부들이 식사 준비에 대해서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3. 중요한 식사 준비 대상으로는 배우자와 자녀라고 대답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므로, 편의식 개발시 배우자와 자녀들의 기호도 조사가 중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4. 주부들의 장보기 빈도는 필요한 경우에 불규칙적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1주일에 1~3번 정도이었다. 식품 구입 시에는 제품의 가격보다는 신선도를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외식 및 편의식의 구매 행동은 취업주부와 낮은 연령층에서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외식을 할 때는 한식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전처리 채소와 조리 식품의 구입 빈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품질이 좋은 소스, 양념장, 육수의 개발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품질과 위생을 고려한 한국형 편의식 개발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성의 취업 증대와 젊은 여성의 라이프 스타일이 다양해지므로 간편하고 품질이 우수한 편의식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참고문헌

1. 우경옥, 식생활과 관련된 가사노동의 실태 및 가치 인식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2. 김귀란, 식생활과 관련된 가사노동의 사회화 실태 및 미래전망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1991.
3. 식생활개선 범국민운동본부. 국민식생활의식구조조사보고서 1989.
4. Dennis, C. and Stringer, M. *Chilled Foods: A Prehensive Guide*. Ellis Horwood, West Sussex, England 1992.
5. 안숙자. 한국주부의 가공식품에 대한 인식 및 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 - 경기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조리과학회지 5(2): 75-90, 1989.
6. 광동경, 이경애, 류은순. 조리냉동 및 냉장식품에 대한 도시주부의 이용실태 및 인식경도와 식품제조업체의 의식구조 조사에 관한 연구. 한국조리과학회지 9:230-238, 1993.
7. 김미향, 한재숙, 이효수. 도시주부의 인스턴트식품에 대한 인식 및 소비에 관한 연구-대구지역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25(3): 69-78, 1988.
8. 광동경, 이경은, 박혜원, 류경, 최은정, 홍완수, 장혜자, 김성희. 한국형 냉장편의식 개발을 위한 주부들의 인식 조사.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12(4): 391-400, 1997.
9. 이종구. 실험 및 조사자료 분석을 위한 SAS의 이해와 활용, 성원사, 1993.
10. 한국여성개발원. 1996 여성통계연보, 1996.
11. 송연성. 외식산업의 양적인 팽창. 소비자시대 102: 28-29, 1996.
12. FMI. *Trends in the United State: Consumer Attitude and Supermarket*. Food Marketing Institute, Washington, D.C. 1995.
13. Kodhak, J. *Takeout*. Rest Bus Nov. 20: 151-166, 1988.
14. 이기춘, 이은영, 이기영, 황인경, 김민자, 김영옥. 산업사회의 소비자 형태 연구 -서울시 가게의 의식주 생활관련 상품대체와 구매행동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27:115-132, 1989.
15. 통계청. 도시근로자 가구당 외식비 12만 9천원. 외식경제신문 1996. 6. 27.
16. 김혜영, 최선희, 주선의. 편의식품 이용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11(1): 71-82, 1996.
17. 채옥희. 가정생활의 유형화를 위한 Life Style. 원광대학교 논문집 18, 1984.
18. 문숙재, 홍성희. 생활양식 유형에 따른 가사노동 사회화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6(3), 1988.